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생근

구유에 임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찬양예배는 성탄 축하 음악예배로
25일 성탄절예배는 9시와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을 또 맞는다. 올해의 성탄절은 웬지 더 거룩하고 엄숙하다. 나라의 경기가 치명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성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구유에 임하신 사랑, 권력자 대신 목자들을 초대하신 그 사랑의 의미 때문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는 시끄러운 장사치들의 외쳐대는 소리, 화려한 장식들과 흥청망청 뿌려지는 유희문화가 줄어들고, 대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사랑을 고요히 묵상할 기회가 주

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 낮고 천한 구유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하늘의 은총을 맛보아야 하겠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는 할렐루야찬양대(지휘 김철륜, 반주 조희영)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음악예배로 드러진다. 지난 12월 4일부터 매주 세번 이상씩 모

여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번 찬양곡들은 '오 거룩한 밤'을 포함하여 총 일곱 곡으로서 약 30분 간에 걸쳐서 연주된다. 특별히 여섯번째로 연주되는 '성탄송가' 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불을 끈 채로 온 성도들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찬양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의 성탄절예배는 9시와 11시 두 번에 나누어 드리게 되며, 9시 예배는 김성관 담임목사의 설교와 가브리엘·임마누엘·실로암 연합찬양대(지휘 조신욱, 반주 백금옥)의 찬양이, 11시 예배는 김창인 원로목사의 설교와 할렐루야·아멘·호산나 연합찬양대(지휘 김철륜, 반주 조희영)의 찬양이 각각 있게 된다.

충현의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분주한 모임과 행사들에 몰입하기보다, 예수님의 오심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사랑을 겸손히 실천하는 뜻 깊은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선교정탐여행

이번엔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위원회에서는 내일(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박 10일에 걸쳐서 김영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지역 선교정탐여행을 다녀오게 된다. 아프리카로 모아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 방향에 맞추어 진행될 이번 정탐여행을 통해서, 수단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상황과 선교 가능성들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단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및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의 선교 현황과 선교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건강 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이번 정탐여행에는 노광현 장로와 이승림 목사, 그리고 하대선 장로, 김춘권 장로 등이 동행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성탄 축하 잔치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탄 축하 잔치를 갖는다. 경배와 찬양 및 경건예배, 그리고 인형극과 성극, 탈벌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잔치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으로 큰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서 장차 본국으로 재파송되는 선교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

특별제직회

다음 주일(12월 28일) 저녁 찬양예배 후

다음 주일(12월 28일)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특별제직회로 모인다. 안건은 1997년도 결산과 1998년도 예산안 심의이다. 제직회에서는 본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준비 중이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서, 미국내 교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명예신학박사 학위로 알려진 다. 학교 당국은 매우 엄격한 심사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원에서

김창인 원로목사께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키로

기를 '평생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김 목사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신학원 당국은 학위 수여식에 필요한 모든 복장 준비와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가 부담하겠다고

정을 거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수여식은 웨스트민스터신학원에서 거의 20여년 만에 치러지는 의미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오늘 3부예배시

교사·찬양대원·위원회일꾼 임명

교사총회는 12월 23일 저녁 7시 30분 갈릴리홀

1998년도에 교회학교와 찬양대에서 섬길 교사와 찬양대원, 그리고 위원회 일꾼 임명이 오늘 3부예배시에 거행된다. 오늘 임명되는 교사는 총 1,446명이며, 찬양대원은 총 1,238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임명에 앞서서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봉사한 교사들은 타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강력히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부서 이동 교사들이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금번에 임명되는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앙훈련 여건이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교회 등에서 총체적인 열악함을 안고 있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 역시 교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찬양의 은총에 감격 받은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영성을 위해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제1주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모습)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천국 왕 메시아의 통치 (1)

(이사야 11:1-3)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통치자(왕, 대통령)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의 체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왕이신 메시아가 계시고, 영토인 장소적 천국이 있고, 거기에 구속함을 받은 천국 시민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네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왕은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왕은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할 만한 지혜와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한 마디만 하면 온 국민이 '옳습니다' 하고 따를 만한 지혜와 덕망을 갖춘 권위가 있어야 왕으로서의 자격자입니다.

셋째로, 왕은 백성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여 움막에서 살던 국민을 문화주택에서 살게 하고 보리죽을 먹던 국민에게 쌀밥과 고기로 배가 부르게 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왕으로서의 자격자입니다.

넷째로, 왕은 백성 중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한 건도 없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용서없이 처치해 버리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손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 왕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천국 왕의 내력이 어떠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1절)

천국의 왕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왕 메시아를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였을까요? 다윗 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광장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새' 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가 난다'는 말씀의 뜻은 보잘 것 없는 데서 천국 왕의 싹과 가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라고 한 것은 나무가 다 꺾어져 없어진 것 같은 상태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여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운동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운동은 다윗이 죽은지 너무 오래여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부자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라, 여관집의 짐승이 자는 우리 안에 있는 구유에서 나셨으니 그 모습이 한심하였습니다.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형편없이 비천하게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곳도 역시 가버나움이란 시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 왕의 내력이 다 망하고 없어진 줄 알았던 나무 뿌리에서 불품없이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2. 천국 왕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천국 왕의 내력은 형편이 없었으나 그의 자격은 굉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국 왕 메시아의 임명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메시아 임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1)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하십니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2절)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하십니다. 지혜란 사물의 본질이나 현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지혜가 모자라서 선과 악,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또 마귀란 어떤 놈이며 그 놈을 물리치는 비결도 아십니다.

(2)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십니다

"...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2절)
'모략'이란 모든 일을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천지가 지음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 백성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목적으로 삼고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위하여 일을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재능'이란 성취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인간은 계획을 잘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3) 진리의 신이 충만하십니다

"...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2절)

이 말씀은 진리의 신이 충만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생명의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3. 천국 왕의 정치는 어떠합니까

(1) 천국 왕의 정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목적으로 삼고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위하여 일을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며 잡수시기를 권했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양식을 잡수셨다고 하셨습니다(요 4:32). 제자들이 그런 양식이 어떤 것이냐고 다시 물으니 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

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2) 천국 왕의 정치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의 왕 메시아의 정치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리하십니다.

오늘 지상의 여러 나라들의 정치 표준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자기들의 유익이 표준입니다. 국제간의 정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언제는 원수이더니 얼마 지나다 보면 우방이 됩니다. 지상국가들의 정치 표준은 자기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형제 나라인 유다를 쳐서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유다와 형제 나라인데도 우상을 섬기는 아람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륜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가만 보니까 유다를 치는 것보다 자기네와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부터 치는 것이 이득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슬그머니 돌아서서 앗수르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유익이나 신의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지상국가의 정치입니다. 둘째로, 세상 정치의 표준은 머리에서 짜낸 모략입니다.

그러나 천국 왕 메시아의 정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공의와 정의를 표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하여 공의롭고 정직하게 다스리십니다. 결코 치우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Christmas'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The Meaning of Christmas

(Luke 2:11)

Christians celebrate Christmas to honor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irth of Christ. It is an officially recognized holiday (holy day) that takes place on December 25th and for the Eastern Orthodox on January 7th. The customs of Christmas festivity take on many joyful traditions; drawn from all over the world. Some Christians practice the lighting of the advent candles, singing Christmas hymns, special family devotions from the Bible, and family share-time of what Jesus means to them. Some Christians also practice gift giving, sending cards, decorating their home, and preparing special food dishes, etc.... Sadly, many Christians get caught up in the "worldly" aspects of the celebration and totally neglect the "heavenly" expressions. The reason for the season then becomes forgotten and lost.

Christmas is not about Santa Clause, giving and receiving presents, friendship gatherings, making special food, hanging ornaments or any varied practice of the kind. Some of these elements can enhance the celebration; if one knows what they are celebrating. The key to Christmas is not only understanding what it means (and very few people actually know) but having the heart that is able to reflect and therefore able to witness such knowledge. The heart that is able to reflect and therefore able to witness such knowledge.

For example, most Christians respond to the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mas?" by stating that it means when Jesus was born. The answer is not incorrect. What's wrong is that only a few people understand what Jesus' birth means to them. Those who know the experience of Christmas can express the joy and peace of it, but those who don't experience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can only and express the despair and turmoil of Christmas traditions.

Christmas is the welcome tidings from heaven for mankind. It is the good news of pure joy and perfect peace. The Bible tells us that on the arrival of Christ's birth,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some shepherds working in a field near Bethlehem and announced: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Luke 2:11). The exact day on which Jesus was born is unknown to us. The city of David was the birthplace of King David (1 Samuel 16:1); who prefigured the Shepherd of Israel whom the prophets spoke of as the one sent not by man but from God. Jesus being born in Bethlehem therefore fulfilled the Old Testament's prophecy of the Anointed One's birthplace.

The proclamation "there has been born for you" refers to the Shepherd of humanity- all the sinners of the world. We see three very important titles that are given to Jesus in the herald angel's announcement: Savior, Christ, and Lord. As Savior, He has the power to save us. Save us from what? Ever since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Adam the nature of all human beings became sinful and the consequence for all sin is death. God's sacrificial love for the world is His only Son - Jesus Christ. Jesus is the only key to receiving a new nature that provides salvation.

As Christ, He is the Messiah - the Anointed One promised to renew God's people. He is the ruler who shall restore the lost and reunite the scattered and fulfill the Kingdom with righteousness, peace and joy. As Lord, He is God. Jesus was born as both God and man. He is the one to which every knee shall bow. Christmas is also about Immanuel. The Bible tells us,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atthew 1:23).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abides with us in Jesus Christ.

Although Jesus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in heaven, we are not abandoned. We are never alone in Christ, the Holy Spirit creates a permanent seal i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Upon our faith in Him, we ar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who brings His presence into our heart. We experience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through the Holy Spirit.

In the Spirit of Christmas we understand the wonderful gift of God's one and only Son first coming to this earth. It is the most awesome gift our loving Father has given to us! Without God's marvelous gift of grace and mercy, we Gentiles



김성관 목사의 성탄절 설교

성탄절의 의미

(누가복음 2:11)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탄생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12월 25일에 지켜지고 있고 동방정교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축제의 풍습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각기 다른 즐거운 전통들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촛불을 켜기도 하고, 성탄절 찬송을 부르며 주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가정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을 주고, 성탄카드를 보내고, 집안을 장식하며,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속적인 면들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는 일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 중 어떤 것은, 그것이 무엇을 축하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참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탄의 참된 뜻을 알고 사고하며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입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참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대답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 행사들의 혼란과 소란스러움을 경험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환영의 소식입니다. 순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몇몇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고 선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다윗의 동네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고된 다윗 왕의 출생지였습니다(삼상 16: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탄생지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셨나니"라는 선언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태어나신 목자의 본질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의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진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세 개의 매우 중요한 직분을 보게 됩니다. 구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본질은 죄악스러워지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창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로 약속되신 바로 그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회개케 하시며 팔팔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또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마 1:23)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오르면 앞이 제시되면, 우리들은 배려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안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거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곧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정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were without hope. We were dead in sin. It is only through Jesus that we are grafted into and become God's people. Jesus is the one who conquered death, ascended into heaven and is coming back again! He is the Savior, Christ, and Lord of all humanity. Through faith in Him, we are able to personally and corporately foretaste the glory of God.

And all glory belongs to God. People who are self-confident cannot experience God's glory. We deepen our understanding of "who" Christians are when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ho" the herald angel first delivered God's good news of great joy to. The message of great joy to mankind came to the shepherds who were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In those days, shepherding was looked upon as a lowly position. Remember that King David himself was once a shepherd and thus became the shepherd of Israel. God chose the common shepherds, the people of no account in the world's estimate, as the first receivers of the incredible news from the spiritual world. He didn't choose the high priests or noblemen.

Why did God choose those who would commonly be considered foolish, weak, and of no consequence to receive such an important message? The answer is found in Paul's letter to the Corinthians:

"For consider your calling, brethren, that there were not many wise according to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and the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God has chosen, the things that are not, so that He may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1 Cor. 1:26-29).

The Corinthians' own church group did not include many wise, mighty or noble. God wants us to know that the message of Jesus is foolishness to the perishing and that He uses the world's idea of foolishness to convey that message. His purpose is to exclude all boasting in self.

After the angel of the Lord delivered God's good news of great joy to the shepherds,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herald angel and they sang two thing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uke 2:14). The advent of Christ's birth brings glory to God in heaven and peace to human beings on earth who have faith in Him.

This peace that God gives us through Jesus Christ is something that many people don't grasp. This perfect peace comes to all those who trust in Him, whose thoughts turn often to the Lord. It is a peace that brings joy to your heart even in the midst of turmoil. This peace brings such joy that it makes you want to sing ou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sing glory to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peace to His people on earth. It is a peace that frees you from concern and let you please God in glory.

God is pleased with those who have faith in His Son. Those who have faith in His Son obey His commands. Those who obey His commands live a Christ-centered life. Those who live a Christ-centered life are directed by the Holy Spirit. Those who are directed by the Holy Spirit are blessed with His peace. Those that are blessed with His peace are promised eternal life. Those who receive eternal life are Christians. Those who are Christians believe in Christ.

We Christians need to recognize our transgressions. We need to sincerely repent and seek God's unending mercy and grace. We need to focus on our heavenly destination and express ourselves with pure hearts in prayers. Isn't it absolutely amazing that all our sins, all our wrong doings can be washed away and totally forgotten because of our wonderful Savior.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 His death paid the price for our sins so that we can come to our holy Father in confidence as we are totally clean - freed from sin - to worship Him as Lord in peace and glory!!!

God's grace that we receive in Jesus Christ is totally incredible, amazing, mindboggling, spectacular and unending. In His grace we live. We Christians must not take this for granted. We must honor our Lord and remember that His coming gave us eternal life. His coming gave us the opportunity to call God "Our Father". His coming was the gift of all gifts. Let's keep "His Coming" close to our hearts in this Christmas and really celebrate by cleansing ourselves through humble repentance and true worship.

It's my prayer that all members of our church corporately celebrates Christmas in the Holy Spirit. It's my hope that the Christmas worship service will nurture each member to witness to one's family and friends through prayers, praises, thanksgivings, and songs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which is that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Let Jesus be the center of our Christmas celebration and always the center of our lives. Merry Christmas and may the joy and peace of God be with you and your family.

의 독생자의 탄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또한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먼저 이 지극히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하였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지극히 큰 기쁨 소식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양떼를 치는 것은 미천한 직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 왕 자신 또한 한때는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목자들을 택하셔서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대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며 연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를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6-29).

고린도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지혜롭고, 능하고, 존귀한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하다는 세상의 개념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모든 자만심을 제거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두 가지 일들을 노래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는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역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염려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들은 주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주의 평화를 맛보는 자들은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실 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인 천국에 소망을 두며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그릇된 행위들이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때문에 깨끗이 씻겨지며 완전히 잊혀진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자들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평화와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랍고, 끊임없이 경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존경하며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의 오심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금번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면서 겸손한 회개와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실로 정결케 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금번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탄절 축하의 중심이 되시며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98년도 찬양대 대원

가브리엘찬양대

대 장 / 김의철 부대장 / 박홍규 정옥남
지 휘 / 조신욱 반 주 / 백금옥

소프라노

강영희 공수진 권미선 김경숙 김광연 김명숙 김미자 김승희
김은희 김점남 김지연 김현진 문숙향 박유화 박인정 방희정
백수연 서정경 석정자 손성옥 손신애 손소영 송세진 손양원
송연자 송형미 오윤숙 윤혜원 이경화 이명희 이민자 이영주
이진희 이혜숙 이연진 이혜은 장신실 정부희 정옥남 정윤주
정정희 조연숙 조인숙 최경숙 최근준 최영희 최유정 최인에
피순복 한보현

알토

강석주 광기영 김신자 김영은 김옥남 김은양 김현정 김혜영
노명순 노순옥 박정순 손근영 신정숙 신준희 연화숙 오영혜
윤춘심 이정선 이설희 이성순 이숙희 이순희 이연화 임선애
정길자 정현자 정희자 조미순 조은비 최귀순 한수미 홍명순
홍원희 홍풍작

테너

강성희 권병철 권석태 권 일 김영달 김천채 김홍배 박상대
손동운 왕승원 윤석민 이경재 이광열 이도현 이시형 이종윤
이지수 이진수 이태형 임창식 장상원 정광태 조인제 최동규
최승민 최용훈 문요한

베이스

강신근 김점남 김낙홍 김성일 김용석 김의철 박명근 박석두
박은기 박은영 박홍규 서준성 손창렬 양은식 유국현 윤옥환
이명희 이상범 이윤복 이재준 이재호 이종섭 이지형 이창우
이흥우 조성훈 정래부 정선현 정영택 허광만 황진경

임마누엘찬양대

대 장 / 차신득 부대장 / 이계인 김은숙
지 휘 / 장기범 반 주 / 김윤경

소프라노

강순영 고지영 김경희 김은숙 김은정 김의주 김춘숙 김효순
김희정 남준자 박경자 박상금 박선아 박정수 박효경 배연숙
서필선 서혜덕 신승연 오은경 오정혜 옥윤미 이명미 이연실
이영선 이영희 이예린 임경순 장득경 정윤아 지숙자 진옥란
채명혜 최정원 한금자 한선형 한옥봉 황명숙 황성숙 황성희
황윤미 황재희 강길래 김경하 김서영 김신자 김소영 김예숙
김은미 김현정 김혜영 김호진 김희선 김희숙 남애덕 박소연
배윤숙 엄선자 원지혜 이경자 이양현 이옥주 이은정 이주은
이현진 임효신 장순양 전소영 정동숙 정정임 조현숙 최진
추은희 허수연 허혜연 허혜진 홍성미 황선희 황순란

알토

김나래 김민주 김보영 김영순 김영임 김영희 김은숙 김현아
노효영 민정애 박형숙 배지은 변지선 손영현 양시정 이덕순
이혜경 장연희 전은실 전지현 조현숙 지의미 최미경 최정현
하진희 한 나 한연선 한정선 현은주 홍은영 황정미 김규복
김숙자 김혜숙 나은이 문혜영 박지영 방미숙 송미경 송희명
양 성 오계주 오동원 오명준 류미숙 유인영 우현미 유진희
윤정선 이재숙 임영선 임효정 전인순 정미란 정영희 정은자
조영주 전영순 추수미 한지연

테너

강만수 권수일 김상권 김훈식 나승은 박종호 변인식 성문현
오경철 오정성 이수형 이정기 정영수 정호길 조성수 최만호
황일선 황석환 강만성 김기웅 김도형 김성수 김용운 김정호
김종훈 박대균 박명호 박 석 변성주 신명식 엄현민 이남철
이재용 이정규 이형준 한정석 장석창 장호권

베이스

구자승 김상열 김성길 김영국 김진광 김진범 김형중 남기석
남석우 마세열 박기훈 박현철 송은석 유병수 윤성렬 이성우
이성원 이승철 이재훈 이종목 전금봉 정종관 조준환 차신득
권석정 김도훈 김진홍 김희식 남승락 박선홍 박완용 염은식
윤인준 윤종권 이계인 이기욱 이수길 장훈 전이배 정대호
정영덕 최승철 홍성민

임마누엘오케스트라

대 장 / 차신득 부대장 / 이계인
지 휘 / 장기범 악 장 / 윤혜경
Violin / 권세영 박신애 박주연 이지연 이혜은 윤혜경
조연아 조현혜
Viola / 김정현 이지연 윤혜란 정수경
Cello / 노은영 오경남 조현주 최문정 최정아
Flute / 송정목 차복희
Oboe / 이미경
Clarinet / 송윤주 주대영
Bassoon / 정지옥
Trumpet / 차복근 홍승현
Trombone / 김혜영 한현수
Horn / 민희진 안윤정 양자영
Timpani / 윤성원
편곡 / 박해진

할렐루야찬양대

대 장 / 이종석 부대장 / 윤주현 전성자
지 휘 / 김철륜 반 주 / 조희영

소프라노

곽영자 권경희 권기영 김명자 김명희 김보경 김성자 김송자
김수진 김수희 김옥순 김윤옥 김은미 김은정 김인숙 김정원
김정자 김종희 김창순 김창자 민순주 박경희 박나연 박미라
박미서 박미애 박정복 박정윤 박현희 배행자 백광자 서영남
성경옥 송선옥 신혜영 신동의 양영애 오명자 원춘자 유영아
유기림 유병금 이경아 이명숙 이복희 이분남 이수진 이영자
이혜숙 이은혜 이정애 이혜경 임순록 임윤숙 임현진 장업선
정명애 정재영 정정희 정찬혜 조영희 차준경 천인혜 최성숙
최수희 최애자 최영선 한수미 한옥화 한홍래 홍순일 홍예경

알토

강경순 강정희 공인화 광숙단 금호순 김경애 김광혜 김부순
김선옥 김성자 김성희 김세희 김송하 김은숙 김순임 김연향
김영임 김옥희 김은미 김은주 김은희 김의란 김정은 김경자
김종녀 김지은 김창운 김혜경 나순희 남미현 마미화 민순기
박경연 박선희 박영순 박영희 박임숙 변문정 손경희 손양옥
손예리 손은진 신명주 심정숙 안현희 엄혜원 오계순 오세은
위은영 유경희 유성희 유재원 유혜자 윤미경 윤세원 윤세진
윤정혜 이경란 이명진 이복순 이선화 이송희 이연순 이영자
이유선 이은선 이인순 이정란 이지영 이 청 이희자 임성남
장선복 장신자 전성자 전화숙 정미애 정미원 정상순 정순옥
정옥현 정은경 정효운 조명희 조영선 주윤숙 차봉순 최수경
최양숙 최인상 최정현 표소연 하순영 허신애 홍희숙 황광옥
황은선

테너

김광선 김구태 김길선 김세희 김정조 김진현 김홍렬 노은영
문경안 박두일 박성곤 박영대 엄복섭 유신오 윤주현 이승국
이인규 이인영 이종석 이준 임연수 전명수 전현옥 정성고
정학주 조윤재 최세진 최원일 최정열 표성배 한송한

베이스

권영주 김병수 김상훈 김선기 김성국 김영희 김윤석 김재범
김종식 김태호 김형곤 박광래 박수연 박연호 박우현 박종신
박진완 서한승 선명환 손정익 송광웅 신현호 오준근 우중근
유재훈 이정립 이주홍 이광희 이형수 이호일 이희재 임국성
장경옥 전인길 정위식 조운현 최우근 표왕렬 허정옥 홍현수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대 장 / 이종석 부대장 / 윤주현
지 휘 / 김철륜 악 장 / 김윤경
Violin / 김유정 김대곤 김영임 박경희 박수진 장연희
최승은 황윤희 김지형 박민 박재희 정 민
정은경 최영옥
Viola / 김혜진 박정민 신민경 이수민 우현희
Cello / 김세경 김희전 조윤경 허주리
D.Bass / 김성수 서효섭
Flute / 고도인 동현정 박태선
Oboe / 남송은
Clarinet / 김진아 최승준 최호일
Bassoon / 김아열 심희재
Trumpet / 안희환 임시원
Trombone / 김영미 전용구

Horn / 이병필 이효석
Timpani / 조선정

아멘찬양대

대 장 / 남선우 부대장 / 조규호 방소애
지 휘 / 이수철 반 주 / 김남옥

소프라노

강동화 강신순 김경자 김명선A 김명선B 김성록 김성옥 김성자A
김성자B 김연홍 김영민 김영숙 김은경 김정순 김지영 김혜경
류명희 박경애 박귀자 박은숙 박혜준 서화자 석태임 심수연
심순덕 심일남 안옥자 오명주 왕인숙 우영희 원용숙 유정자
윤지영 이경순A 이경순B 이군자 이명희 이애영 이영순 이정숙
이제석 이현숙 이현주 임선아 임학신 장순희 전경자 전옥순A
전옥순B 정명숙 정상화 정옥영 정정숙 조동매 조지은 지영희
최경희 최금란 최종분 한 복 홍명희 홍성순 황혜정

알토

강명옥 김국영 김덕봉 김명순 김미애 김미정 김순옥 김순은
김신애 김아진 감영옥 김은자 김정단 김정숙 김정순 김진희
박선미 박옥자 박윤식 박정숙 박종은 방소애 백숙자 백순자
변정자 송유진 안금자 안숙자 엄정자 유영희 이근덕 이명자
이복희 이순옥 이순자 이영숙 이정숙 임금순 임점희 임혜경
장순태 장정연 전유강 정명실 정윤신 정인숙 조준옥 주선영
진명화 최수자 최영란 한애현 한은정 한현경 허영자

테너

공병식 권택은 김성태 김인술 김철환 류기명 문승길 송영상
유현동 이봉주 이하영 정기성 정운출 조규호 최홍규

베이스

김경환 김대인 김신국 김정의 김형덕 노동영 동방용은 박병선
박찬서 방수길 서형석 송준열 우기섭 유영택 원태호 유진오
이보신 이영환 이용재 이정우 이지은 임우도 장병준 전길수
전종익 정기찬 정세용 정우성 조규만 조형수 최상기

호산나찬양대

대 장 / 양선자 부대장 / 박순옥
지 휘 / 이승순 반 주 / 채은실

소프라노

강동화 강순희 광영자 고윤희 김경숙 김경애 김동래 김미자
김명자 김성아 김성자A 김성자B 김숙자 김순자 김연미 김연수
김연홍 김영민 김옥순 김옥자 김재숙 김혜정 남경자 박경자
박영순 박영희 박인자 박정희 방신자 백순자 백영희 서영남
서화자 성춘순 신영자 안경덕 안정희 안준남 양선자 양신자
우병희 유기림 유성자 유효순 이경효 이명숙 이명자 이순일
이옥자 이주형 이현숙 이화자 전성실 전옥미 정금숙 정영애
정찬실 조영자 조정숙 채혜선 최경순 최숙경 최정자 허영자
현계식

메조소프라노

강신자 김숙자 김순은 김옥기 김은숙 김경자 노정자 민병란
문경희 변성옥 박명엽 박순옥 박신자 백숙자 설복연 안강옥
양옥자 염숙현 오경희 이봉선 이영숙 이영애 임선에 정운순
최창현 한 숙 현경남

알토

구영희 금호순 김경자 김금숙 김봉숙 김성도 김순애 김영미
김영자 김영희 김의숙 김정란 김춘지 김혜경 김혜수 배옥순
백영자 변정자 신소자 신영자 신정숙 신정순 안상순 안소현
안정자 양영숙 어수덕 왕덕자 이강해 이규숙 이수자 이순민
이영영 이영희 이진모 이현남 이형주 장명숙 장경훈 정길자
정만자 최태옥 최하자

실로암찬양대

대 장 / 이 훈 부대장 / 박성명 김경희
지 휘 / 장임구 반 주 / 임효선

소프라노

강신영 김경희 김동순 김은희 김진아 김충자 김희숙 노경숙
박정애 박효심 신현숙 안중남 오재명 이상금 이재숙 이정애
이정숙 이중화 임순록 임통개 정숙자 정은희 정현명

알토

김경아 김세희 김정순 라영실 문하숙 박연숙 박임숙 유성희
윤미경 윤정혜 이복순 이성희 이숙희 이윤자 이지용 임영주
주윤숙 최정미 허승빈 마미화

테너

김구태 김재영 김천재 김홍렬 박두일 윤석민 이재욱 이 준
정인선 최세진 황일선

베이스

고범석 권명옥 김 근 김성국 김형곤 김수영 박성명 오순도
유병수 이 훈 임낙준 정영덕 차신득 표왕렬

시온찬양대

대 장/손 철 부대장/정인선 조중선
지 휘/이진우 반 주/최순복

소프라노

강미영 김명규 김영진 김진아 류혜영 박지선 송영현 윤지영
윤혜영 장우혜 정명숙 조수진 조중선 최근희 함희정 허향숙
CarlaStolte

알토

김보라 김정아 노희영 백선옥 신보경 윤지애 이미경 이미숙
이예스터 우미화 정다운 최윤미 홍정화 HeidiV.Voort

테너

김대현 김승환 김준규 김천재 김희선 양현구 양현수 이나훙
정인선 조웅진 채홍표 최도준

베이스

김용신 김중옥 김득중 박형근 손 철 오태형 이상돈 이진복
최요셉 최철국 허광만 황상화 MichaelStolte

핸드벨콰이어

대 장/정경자 부대장/김승옥
지 휘/송재철

대학부

김광미 김미리 김성연 백혜조 오지혜 유현정 이보람 임희연
정소윤 정혜미 최영주 최은정 홍미정

고등부

강미경 강아영 김지선 김현림 안지현 유일환 윤한나 이광목
이누리 이호영 전재범 정지영 조혜영 한신애 홍영란

중등부

권동희 권성재 김내인 김다혜 김보라 김성혜 김나브 김지은
김지호 문보성 박경진 유새롬 이보영 이수진 이한봉 이현주
임현아 장혜영 최강옥

크로마하프 · 만돌린

대 장/구자남 부대장/노순옥
지 휘/강호원

크로마하프

구자남 김옥순 김복남 김동주 김애경 김애영 김철래 김호정
남주옥 박희숙 방전수 손영숙 안성림 이명애 이미란 이용순
이은숙 이정미 정경진 최종란 황건순

만돌린

곽영자 구영희 권미선 김국자 김연향 김은주 김신자 김숙자
김창옥 노순옥 박태순 박미향 방연옥 변순복 서성미 서인희
서혜덕 양광순 우명자 유재옥 어국표 이명희 이상희 이상연
이연희 이연순 이영숙 이영순 이정애 이정희 인정옥 최정현
홍애경

남성중창단

대 장/채원득 반 주/김원철

테너

이재욱 최문생 김봉균 노영광 장생원

바리톤

김종화 이계수

베이스

이전석 장희배

1998년도 교회학교 교사

영아부

부 장/황영일 지 도/한영준

부 감/최정남 서명숙

남교사

김을필 윤희택 안백희 전성옥 이명규

여교사

장선자 박효순 김정숙 김달수 옥미자 김미혜 송혜경 류은경
송화정 김정희 이규숙 이선자 이선희 이미나 이아연 이영순
정금자 김옥희 박용미 윤선주 유용숙 라종예 최정화 강석분
박경희 이홍순 이상옥 오경숙 이종희 한희경 김진아

유아부

부 장/문흥구 지 도/김정자

부 감/권명옥 이남숙

남교사

조승철 김상철 정재호 이영만 조광호 변기삼 유정범

여교사

박미향 강소영 이명희 정애화 이은주 신은자 임미순 장정순
문인숙 양혜영 박순숙 이천애 전숙영 김은희 김두연 김예순
김윤숙 정명주 김명희 최미정 조순혜 이현숙 변미자 박윤경
김연희 염정숙 오영자 송정희 윤부기 이명희 이봉순 조옥련
김춘희

유치부

부 장/이종섭 지 도/정연희

부 감/김구형 오화자

남교사

김용대 장금줄 이창희 이호석 이호식 오철민

여교사

박명란 이현미 박미숙 최금실 조인혜 손주현 이홍자 유복심
박선희 서경덕 노재희 이순복 전순희 양현녀 이은선 정은경
이순옥 김순이 김지선 안명숙 김정수 임선영 이계자 황자영
한유리 손유비 오정남 이은이 이종권 김성화 손혜경 박성화
김희종 유준옥 서미미 허정숙 김유진 장철자 엄유선 전금수
강수연 민병옥 조복연 설진희 임은미 김예숙 김혜선 김지란
황건식 김지숙 김혜선 지영희

유년부

부 장/이정우 지 도/김영기

부 감/강철형 안금자

남교사

오순도 오해섭 송병열 윤철중 김승기 김인태 유홍수 문원준
조규하 장용희 이상일 조금복

여교사

김명선 한경숙 안설희 김지연 마현미 강현주 이경숙 양승남
윤경자 이영숙 박귀원 황영림 배리미 이주연 김금순 박은주
이성옥 유묘종 최종남 오은혜 윤숙희 이미화 정경진 안순복
이창숙 김정원 이명자 조근실 임영숙 윤마리아 김명화 김현실
유현정 한계순 신귀옥 이은혜 이용순 송영복 송성순 손순자
방대애 송정순 구해옥 박옥자 양승복 변경심 백운칠 장지란
호정화 전우영숙

초등부

부 장/최무갈 지 도/염현일

부 감/이철호 백영기

남교사

허만선 손태계 김신국 김의수 한병규 오경록 이삼열 박관색
최창준 함한원 이계현 김성태 장지관 이창배 서동구 문봉환
양국석 이동국 함철주

여교사

이정현 김승희 김재은 신미애 한복자 이인수 함미자 이영복
오광순 이연숙 장진옥 이영숙 이정미 이지연 천은송 문소희
이지숙 이원희 김경희 임복례 김영희 최혜록 송목화 주명숙
생향록 정은영 장복희 정문재 김계순 이따숙 김유순 신경순
장연춘 한정화 이봉표 원상희 허은숙 홍정애 백미순 이현숙

신해옥 윤수진 김순련 진효원 장성희

소년부

부 장/이인상 지 도/한승일

부 감/이인광 김영숙

남교사

조영구 지성광 신태홍 편무산 김원대 김광영 양찬호 장인희
임덕일 이아론 이재학 박석기 전종일 이상남 진양을 신종기
이승계 이강길 이정생 권영훈 박홍석 박영섭 이석목 한종남
이인용 이정태 송영준 전인상 정 진 강 철 전병선 권백용
정창원

여교사

신옥자 이은경 이영실 백원경 엄소연 이영희 김미리 최영옥
조순남 장원옥 이복희 최종분 이종영 홍경숙 심인순 윤혜신
김천순 이순애 박양덕 정미순 정은희 신영희 박성남 박병순
한정은 이명애 유인애 이애란 안지영 장혜진

중등1부

부 장/김단용 지 도/박노철

부 감/원용철 조옥환

남교사

전용동 김일생 김태홍 정달영 강신근 강성일 이형준 박홍규
오임석 김세종 이영민 김명철 전도석 오춘성 이윤복 김정구
진원식 오수민 백창기 강석인 신용한 조윤성

여교사

김전미 이미리 김경아 최영순 송선아 이명희 김승옥 백광희
최정일 김경성 최은혜 강영희 김말자 최희경 노순옥 신혜진
신정순 최은희 최옥숙 황경화 장혜남 이미숙 정혜라 정혜미
권정옥 이안선

중등2부

부 장/이 훈 지 도/정갑신

부 감/박철구 이애나

남교사

김영주 정원근 이상해 이동혁 문재연 조용희 김동수 김우준
윤병식 강남석 장기락 박성호 문윤수 조종민 남중호 배종락
이찬재 정진곤 문흥무 박용기 장현덕 한종남 안병만 김운섭
이신동 백석기

여교사

오순자 만희정 정은희 정현자 한은주 박명숙 주영혜 한성희
고진순 김명자 김수영 김명숙 정영희 홍정호 유명숙 김성녀
나성에 임정숙 심순덕 손은경 김순종 박윤경

중등3부

부 장/엄필성 지 도/이준경

부 감/장주석 이수자

남교사

현준봉 박우정 윤석현 조성래 류동호 임희준 조문수 황인걸
이종훈 이종환 이준석 최낙은 박관수 이정진 박태양 신민석
이지수 이영석 이준희 이영환 김 창

여교사

이지용 원지현 이미숙 정임순 이찬주 김성희 전주현 정미숙
이은미 김부영 이정희 정정은 최은경 조순림 백혜영 최영관
이순자 남은희 홍진희 이수경 이혜숙 장애선 박예순 장민화
이명화 김해수 전제숙 김학선 임무자 김경희 김광희 김전경
김미란 홍금철 공수전 이규남 송미경

고등부

부 장/임무천 지 도/이국병 부지도/김정환

부 감/김광호 조혜순

남교사

구재환 이병두 김황천 정선현 김영선 이정현 양계수 장태영
장승규 김규용 홍순길 이무열 박상대 홍원석 이상국 이주용
김동욱 이석중 서상근 이경재 남명진 최상만 최영일 오동혁
김재철 김대용 구승희 윤종국 노수직 김영환 백철선 박종률
임광빈 선주홍 엄복섭 이상록 윤민재 고범석 김필일 이정기

여교사

강영자 김명주 정이숙 양순옥 권수정 문점희 동계현 현경남

여신자 정경희 이득혜 이부영 광도윤 이현정 한정숙 김성주
김정순 한 숙 김선자 송진경 백소연 김연식 마미경 이오복
손명희 박소영 장남희 성명선 이수현 오숙영 김정주 서은숙
김신영 김효진 김희정 이승연 허옥남 유길자

대학부

부 장/서동석 지 도/한근수
부지도/박종화 이종관 조재민 최진우
부 감/안석현 최 규

남교사

노영한 김종권 정구도 정수일 이종립 최진우 박세용 김민준
임영호 최민석 하성두 정상훈 김지웅 김낙교 김일승 고문길
변정섭 박근호 백국현 우종웅 정한철 이상근 이종태 강천구
강석진 김희석 이진하

여교사

우숙영 신미애 안정하 황은신 이미숙 박현주 정은영 조은비
김소정 이바인 유주화 이희경 안선영 이미안 공경화 김서영
김은경 이지현 이지영 한미현 김은미 김지연 남화정 최미영
김혜영 손정미 오지현

청년1부

부 장/이갑재 지 도/김필수
부지도/손미희 송원석 허용구
부 감/장철환 원길자

남교사

정태두 최경길 김인철 문영규 장충균 이찬욱 고승균 황인주
유인규

여교사

남정애 신인순 장순옥 정진녀 김혜정 김금숙

청년2부

부 장/송환창 지 도/전형준
부 감/이형수 염숙현

남교사

정재모 이학봉 박찬욱 한홍연 최준호 김충식 김정록 황석환

여교사

김은숙 강순희 김순임 채명혜 김순곤

장년1부

부 장/손경수 지 도/박형용
부 감/이동명 이순자

남교사

박정태 황현철 이태식 소재철 장영환 조중광 김연근 강만호
라승은 박종태 김규종 김승곤 심용길 강종묵 정찬국 김사주
박범익 임채봉 박석봉 김규석 이광국 박종규 김이철

여교사

채해선 한숙원 한정희 김경순 김용섭 이희주 안정선 진화자
강길례 이재자 윤병인 이영자 오경희 윤인순 김정숙 한금자
이상희 유재춘 지인숙 전은실 홍화숙 정미자 문현옥 최태옥
성미선 김순옥

장년2부

부 장/정운석 지 도/윤일탁
부 감/황익환 박영엽

남교사

이병영 최재훈 이병희 조정환 한준원 전학래 장봉순 이진규
김용찬 금호탁 안노수 이상용 한만교 함용식 전용혜 박종옥
이규현 박문태 박창근 홍성옥 백규현

여교사

정경자 이정업 안소현 안정희 김춘지 남수현 김성순 서금자
민병인 이서륜 조금자 최봉숙 전옥희 강경란 최현숙 김찬만
김성도 차창숙 윤옥자 조분자 박천희 전신덕 김혜경 이매재
황현숙 이정순 한혜정 이명균 이혜수 김복임 김은영 양숙자
유영희 정순이 김연옥

장년3부

부 장/송기홍 지 도/이승우
부 감/최차용 김용순

남교사

김대린 김민채 주열호 지규성 김진섭 김세홍 김은철 김용석
강진택 엄기정 김도신 박덕규 전용찬 김용도 이호성 박광식
김경수 최경하 고재훈 정창일

여교사

한영숙 정정자 이정애 이미애 송태영 이종숙 이보영 이연순
장정숙 김준자 김영애 최봉순 송정배 현계식 이의복 유금열
최경복 정재무 조귀남 이귀분 최선옥 정운순 김석순 김복련
한동숙 김후전 김동례 이춘일 김점순 조동숙 김심영 조희순
김영숙 유금순 한영덕 서양순 조복덕 이진모 공돌옥 임선애
윤명숙 김현자 임근예 전정우

소망부

부 장/김광남 지 도/이종대 부지도/정복인
부 감/이만기 반정현

남교사

이장하 권용동 조홍진 유영식 추병창 허형철 김윤식 이정훈
강희창 김철남 허관영 정유채 김경식 오동환 이기찬 허종문
윤상철 신병호 오세길 최용길 이근수 박영준

여교사

최태옥 이정숙 신영순 강정희 김영숙 신명순 손성옥 이형숙
정문태 이정애 이옥자 박정애 유성자 안정자 이상덕 문하숙
강순자 조영숙 구옥자 김숙자 이영영 박숙경 이형주 김명자
안지영 나선애 윤정미 김순자 이영애 서영남 여중여 이인경
유병순 라영실 왕유남 필기복 이경효 박춘옥 안옥실 김순남
구인숙 남 회 변성옥 김상인 한동열

신혼가정부

부 장/이병옥 지 도/조철수
부 감/박덕양 백영희

남교사

이상남 이정관 강태주 배춘식 김기완 박영섭 김성호 우종호
문영식 서운기 윤상규 이승득 구성혁

여교사

석귀수 배복자 박현혜 정정희 박선숙 김정선 박일심 오정희
김전화 이미애 정영희 이필순 박소연 송상희 오명준

사랑부

부 장/전홍렬 지 도/이홍성
부 감/김중선 최미정

남교사

김수연 조명호 이정탁 고광국 박재빈 박순규 김창권 김종홍
이승구 김이수 나갑채 김민철 이명복 조태현 이신환 서석태
전인환 서지석 이형근 남궁성 양승복 박준배 손영호 박치용
송수일 김봉호 김은철 이진우 이희범 백선엽 박준기 유영선
전태영 최한중 이시이트모히사

여교사

김정연 김경애 정은숙 손소영 김경숙 강혜숙 오후연 이명희
오재분 김재윤 김나정 박명희 이선옥 변애선 이정민 박해진
박정희 최정순 권정자 김순애 이주영 아유정 권현신 김윤희
정애교 노정자 조순희 양영경 윤영자 러영실 방유려 이주현
장명숙 양명자 전영순 조은영 송혜란 박유화 송선미 한성수
박정숙 정호영 김향자 정호권 박해옥 박진화 임창순 조명자
양영숙 정애자 민혜정 김경순 정상기 김행자 오유경 김공예
김봉희 성민정 김순재 서계실 손재열 장미영 이연자 구명숙
김경민 최수남

에바다부

부 장/전홍용 지 도/박인기
부 감/신상수 강석란

남교사

변창태 홍재순 이강근 이상협 김평호 김병권 기원삼 양해용
안준모 정기일 교덕현 전은수 윤명범 김경근 유성렬 김상화
홍희숙 이진섭 김선준 최진원 윤경보 박태진 안성준 홍계준

여교사

이계옥 김순옥 이애숙 김유정 이혜숙 조현아 오연주 옥명희
김정미 유성희 문 회 정영미 주영희 강가일 김현실 김선림
양미옥 양은옥 전은수 안영희 문성옥 서인성 강순금 박무미
노효영 장정훈 최은경 김영언 이재욱 이영아 정희정

탁아부

부 장/조인제 지 도/김영숙
부 감/김영은 박윤석

남교사

김재호 김태호 김경진 이상진 안신호 최남희

여교사

김희선 조성옥 김경아 박미순 신명자 김정화 김제순 김중순
홍양래 김혜영 박은숙 이명자 김호녀 하말영 김희옥 김정순
박신춘 이명순 조금직 손영주 오윤진 이강자 이강분 오수옥
나승순 안정자 김춘식 김연태 이옥순 김재순 김춘식 김연태
김정숙 박복동 손옥희 정순덕 이순남 김말선 이가옥 최애숙
나종순 박옥춘 이현주 이현순 성춘순 공정자 차명신 김수자
유옥련 백옥심 고영혜 홍영숙 고명진 임도화 안춘희 강정일
나정순 천현애 전정희 정민자 권필순 정영애 김한선 정진순
김말수 김명숙 안숙자 김숙자 서덕순 윤옥중 이달순 최순자
이옥순 이기애 이음전 홍갑순 강경란 문선순 최예순 송정옥
나영의 유남순 표복심 송춘임 이연순 채귀순 최현자 전옥이
김철 강영자 이영자 양명희 정주한 배귀녀 김춘희 심정호
장진옥 최숙진 강성자 강계열 유영순 소정자 이영순 노분선
윤병순 왕복남 천태숙 최재희

영어교육부

부 장/김천채 지 도/
부 감/이부성 장영옥

남교사

이정협 오석 김병수 정지태 EinsteinLavina 김준호 김정환
류언목 황철호 배성수 윤병현 강남훈 이동선 DavidYorston
SeanPark

여교사

홍경숙 김석영 김명희 이유주 김지영 강은숙 김선화 박찬영
김정순 AliceLavina KarenTinsley 최수미 오경전 허의숙
구명남 이연기 남정화 박루미 박현숙 오현정 이지희
JoyceAhn JennyKimPark

새가족부

부 장/강모용 지 도/김재철 부지도/배옥인 최영란
부 감/최윤덕 박명엽

남교사

정청길 김달현 박남주 이달옥 김문섭 박승길 전은배 유종석
김창국 백남재 임낙준 교재송 김종훈 팽광현 이희국 윤종섭
김흥기 김영암 박석두 이종인 이흥기 이상범 윤우선 임병준
김제춘 김연태 이민호 유상태 황상식 김진경 안병만 강두형
권병철 김명곤 황일선 김종태 조종덕 송두섭 전계석

여교사

장영저 신정숙 윤수원 전방자 김금순 반연숙 염경자 정복득
방휴정 광기영 이영숙 손숙자 김영은 하인순 어은옥 박현숙
최하자 홍현희 노혜경 김정희 허연옥 박은숙 지아연 조영혜
김용숙 최영득 박점순 김정희 강수자 황정임 김명숙 이금순
지순애 허순자 김오래 이경자 김경숙 이옥기 김지현 김은나
정금연 유정자 최어수 이현남 장명자 홍혜숙 구덕임 강영매
박순옥 최정옥 김영혜 강옥자 김지연 황차관 이신자 박양자
장지현 장 현 최계순 박영희 정옥련 박종영 박효재 김선자
한숙정 유선덕 신소자 김숙희 이명자 이성강 이자경 철희순
이연선 홍경숙 김월분 어학자 최경순 김남희 이만순 주순희
탁창배 임통계 홍경선 최 순 김화순 박영옥 김재순 설춘희
김연숙 이성강 김문정 최필순 이재영 이혜자 이윤자 박정란
전경균 임원길

취재수첩

대학부 일일찾집

대학부의 소그룹인 '봉공방'과 '돌베개'에서 오는 12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 앞 커피전문점인 잉카에서 일일 찾집을 연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봉천동 일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봉공방과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돌베개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의 수입금 전액은 철거를 앞둔 봉공방의 새 보급 자리 마련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충현의 온 성도들이 이번 뜻깊은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가족부 찬송가부르기

지난 주일 새가족부에서는 처벌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새가족부 회원들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되새기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모든 회원들은 각 처벌로 나누어 각각 2곡씩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다. 각 팀마다 옷을 맞추거나 촛불을 준비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우리 새가족 회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유년·초등·소년부 성탄예배 11시에 부별로

유년·초등·소년부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성탄절인 오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부서별로 드린다.

충현복지관 극기훈련 실시

복지관에서는 12월 10일과 11일 1박 2일 동안 춘천 위도로 장거리 사회 적응 훈련을 다녀왔다. 이번 장거리 사회 적응 훈련의 목적은 훈련생들이 평소 하기 싫어하는 힘든 운동이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취업시 힘든 작업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극기에 있으며 훈련생 59명, 교사 16명 총 75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크로마하프, 만들어진 찬양대원 모집

크로마하프·만들린찬양대에서 12월 한 달 동안 대원을 모집한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나사렛홀에서 한다. 크로마하프·만들린찬양대는 주일 찬양예배시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일꾼을 찾습니다

• 매주일 오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섬겨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선교위원회(교관 356번)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 찬양위원회 간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본교회 성도 중 PC사용 가능자로 근무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종일 근무, 목요일은 저녁 근무만 하면 됩니다.

지원하실 분은 찬양위원회 현상민 목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데, 크로마하프나 만들어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은 구자남 권사(전화 514-6047)에게 하면 된다.

동서울노회 주교연합회가 여는 성경고사·성가경연대회에 참가

동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경고사 및 성가경연대회가 이번 26일(금) 오전 9시부터 갈릴리홀에서 거행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총 62명이 성경고사대회에, 또한 유년부와 소년부의 찬양대를 포함하여 총 154명이 성가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과 찬양에 더욱 마음을 모으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행사들이 각 교회학교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속에서 진행되길보다는 소수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행사에 머물고 마는 듯한 분위기가 아쉽다.

앞으로는 더 많이 알리고, 기도로 준비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온 교회학교의 사랑의 기도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말씀읽기 시상 곳곳에서

2교구에서는 올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성도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 1등상은 일년동안 성경전체를 열두번 읽고 오백장을 더 읽은 노순옥 권사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2등상은 김의철 장로(7독), 3등상은 서금자 집사(6독)가 수상했다.

또한 가브리엘찬양대에서도 같은 시상식을 가졌는데, 역시 가브리엘 찬양대원인 노순옥 권사가 1등을 하였고, 2등은 신정숙 집사(12독)가 차지했다. 특히 신정숙 집사는 신구약성경 전체를 노트에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를 열두번이나 읽는 놀라운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계기로 하여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의 불길이 붙여지기를 기도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사진 찍으세요

아직까지 사진을 찍지 않으신 제직, 98년도 신임 남녀 서리집사께서는 서둘러 사진을 찍으셔서 '제직사진첩' 만드는 일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양평 은혜의 집을 다녀와서

이정님

(집사, 장년2부 교사)

"'은혜의 집'에서는 사랑을 받습니다."

1997년도 저물어가는 11월 14일 장년2부 교사들이 정성을 모아 '은혜의 집'을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방문하였습니다. 촉촉한 단비가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대지를 밤새도록 적셔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 사랑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담고 양평으로 가는 동안 찬송과 간증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칠읍산 아래 예쁘장한 조립식 '은혜의 집' 앞에는 작은 폭포가 흐르고 사방이 산으로 병풍 처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개원한 지 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최재학 전도사님의 안내로 예배실로 들어가 보니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장애아들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30여명의 장애아들과 우리 일행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그들과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장이 그리웠던지 어떤 권사님을 불렀고 삶을 부비고 내게도 누군가 다가가서 불을 부비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들 중 몇 어린이는 거동도 못하고 식사 등 기본적인 활동도 할 수 없어서 타인의 도움이 아니면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아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의탁 장애아동 47명과 자원

봉사자 8명을 합쳐서 55명의 가족이 생활합니다. 저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은 그나마 활동이 가능하였습니

다. 자기의 식구 돌보기도 어려운 이 현실에 불쌍한 저들을 내 살같이, 내 몸같이 소중히 아껴 주는 전도사님 내외분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는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녀 총각 시절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서로 봉사하다 만나 평생을 동반자로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예수 사랑을 나누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한쪽팔을 의수로 의지하고 사시는 전도사님은 건축의 은사로 받아 은혜의 집을 손수 지으시고, 지금도 다른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패하고 부정하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살맛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는 그날에 제장 천국이 이뤄지는 날일 것입니다. 장년2부 교사 중 한 분이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정기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수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은 이토록 모든 이의 가슴을 베풀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연례 행사가 아니라 자주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많아지기를 염망하며 다짐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정화
(초등부)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얀 눈이 내린다.
밤하늘 가득 물려 퍼진다.
보드득, 보드득

크리스마스 이브날
잠이 든다.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창문으로 빛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시는 따뜻한
눈빛 때문에
어느새 하얀 눈이
사르르 녹아 버린다.

어느새 크리스마스
밤도, 지나가 버린다.

아기 예수님

이선교
(소년부)

수많은 문명이 반짝이는 밤
깊고도 고요한 베들레헴 동네에
큰 별 하나 멈추어 섰어요

저 멀리 못 천사
찬송 소리 울려 퍼질 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사하시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뻐 찬양드려요

십자가 그 은혜 주시려고
높고도 귀하신 아기 예수님
하늘에 크신 영광 빛 되에 오셨어요